

여 성

신행활동 사회봉사 방학자녀지도 자기개발

여성불자들이 “바쁘다 바빠”

요즘 불자주부들은 바빠다. 여류생활을 맞아 자녀들의 학습·생활지도까지 늘어 하루 종일 눈코 뜰새가 없다. 게다가 불자주부들은 시간을 쪼개어 신행활동은 물론 자기개발과 봉사활동까지 참여한다.

대부분 여성불자들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역량이 넓어짐에 따라 불자주부들도 한가지 이상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한 몫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계에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소리다.

경북련 자비의 집, 불교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약사보살로써 각 병원의 자원봉사활동, 법회지원, 환경정화운동 등을 비롯 사회 곳곳에는 불자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되찾겠다는 불자주부들의 의식이 변화되면서 사찰과 도심포교원, 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개설되는 문화강좌도 각광을 받고 있다.

“소일거리를 배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는 주부불자들의 강좌 참여도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부불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지식



◇ 최근 사찰을 비롯 각종 불교계 문화 시설에는 주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역량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법회지원·급식·전화상담등 곳곳서 능력 발휘  
교계 문화센터 교양강좌서 더위 이기는 면학

원봉사연합회 등 무의탁 노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 자비 전화, 마음의 전화 등의 각종 상담활동, 보육원, 양로원 복지관 등 위문봉사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들은 불자주부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의 전문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 봉

습득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개설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현재 교계에는 BB불교문화센터, 조계사문화센터, 길음복지관, 목동청소년회관 등에서 주부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한달내지 3개월기간으로 상설되고 있다. 이처럼 각

종 교양, 취미, 문화강좌로 진행되는 문화강좌에는 불자주부들의 면학에 대한 열기가 한여름의 더위를 무색케할 정도다.

이들 단체가 주부불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하고있는 강좌는 불교교리, 수지침, 다도, 꽃꽂이, 서예, 노래부르기 교실, 사진, 휴대전화 등 다양하다.

가정의 주부만으로 인주하다보면 무료함에 젖어 자칫 가정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신행생활이나 취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지금부터 “무료하다” 할일이 없다”라고 타닥타닥하고 시간을 활용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자. 분명 자신의 발전은 물론 가정생활에 새로

운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김종근 기자

불자 공양할머니 55억 부산대 기증



부산 남포동에서 30여년간 고풍집을 경영하며 어렵게 모은 전 재산 5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산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선뜻 내놓은 독신할머니 강호씨(88세)는 불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동의료원에 입원중이던 지난 11일 자신의 뜻을 부산대학교측에 알리지도 않은채 공중까지 끝내놓았다. 주의 가족들에 의하면 강할머니는 재적사찰은 두지 않고 있으나 부처님오신날 절을 찾은등 불교를 믿어 왔다고 한다.

최근 전국민을 경각케한 가정주부들의 윤락행위와 관련, 우리사회의 성문리와 여가문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경찰에 연행된 일부 중산층 주부들이 “무도함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과 지역신문등 노출된 경로를 통해 광고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병폐의 깊이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의 소리로도 적지 않다. 10대 소녀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가정주부들의 공공연한 윤락행위까지 드러난 이

윤리도덕관 부재 ‘가정 흔들’  
‘무도함때문에’ 등 쾌락적사고 만연  
범사회적 여가문화 프로마련 시급

상 이 사회는 더이상의 도덕성을 논할 자리를 잃었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어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위봉애박사(울지병원 신경정신과)는 “주부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주부를 말선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가사와 자녀교육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 수 있

도록 주부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이를위해 봉사활동이나 운동 각종 문화강좌와 참여등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정신과 전문의들은 주부들의 탈선을 개인의 도덕성 결함보다는 사회적인 병폐로 구분하며 해결책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 성취욕구의 충족등을 내놓고 있다.

다”고 말했다.

전체 신도수의 약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 불자들이 오계를 잘지키도록 신심을 바르게 심어주고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문화강좌와 시설의 확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

만 화

법 구 경

\* 이착의 장 \*

방종한 자의 욕망은  
끓덩굴처럼  
무성하게 자란다

이 향 원

이들의 집구석에 내가 발을 들여 놓나 바라

아직 보시 할 곳도 여러곳 더 있고 해서 이 집도...

나한테 한판 안주는 인간이 여기저기 보시 한다고 극락 갈 줄 알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흥! 잘해 보시지

방종한 자의 욕망은 끓덩굴처럼 무성하게 자란다 숲 속에서 열매를 찾아 나선 원숭이처럼 이층에서 저층으로 끝없이 헤맨다

어! 탕! 탕! 찾!

뭐야, 이자식! 너 감정 있어

실수를 왜 해!

아... 아닙니다 시... 실수

별 거지 같은 놈 다 보겠네

이게 모두 그 동떨어진 때문 이잖아

오- 뒤집힌다 험수같은 그놈 의 돈...

즉석 복권

좋다! 저것으로 승부내자

이 세상에서 천박한 집념과 불타는 이욕에 정복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쉬지 않고 자란다 비맛아 무성함 비라나돌처럼

아니! 또 땡이네

10만원어치 굶어도 만원짜리 하나 안걸리는 이거 사기야!

야! 멋! 천만원!

영! 처... 천만원

아름마 드디어 집안터 하하하

세월 이젠 동전 한날도 없나본데

그렇다고 그냥 물러날 수 없지

아름마, 이거 금딱지 로렉스인데... 잡고 복권 백장만...

제발 부탁한다

들어라 들어

빌어먹을 집에 갈드르 하나 없이 날렸군

다음 차 또 있어요?

박차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박하고 불타는 이욕을 억제한 사람은 온갖 근심 걱정 맘껏여 여의리라 물방울이 연잎에서 떨어지듯이

여기 모인 그대들에게 알린다 우시라 뿌리를 찾는 사람이 비라나풀을 키는 것처럼 욕망의 뿌리를 캐내라 그리고 갈대가 물결에 꺾이듯이 악마에게 꺾이지 않도록 하라

우시라를 향해(香葉)로 번역, 냉악(冷葉)의 이름이라고 한다.

좋은 책의 신실, 우리출판사가 관해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 시리즈 탄생!

불교와 역사의 만남, 깨달음의 대하를 온몸으로 헤쳐나간 고승들의 치열한 삶의 역동기!

열린기획, 앞선 디자인, 생동력있는 작품, 한글세대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 1 사려깊은 사색과 열정과 열정적인 작품
- 2 명사들이 쓴 자, 말을 듣고 읽어라
- 3 열정적으로 쓴 스님/승려의 삶
- 4 품격있는 글쓰기/승려의 삶
- 5 허공에 대략된 문명
- 6 하늘이여, 땅이여
- 7 부처님에 부처, 돼지에게 돼지/승려의 삶
- 8 푸른 잎자의 노래/승려의 삶
- 9 꽃구멍 없는 소가 되어/승려의 삶
- 10 청산은 나를 보고 밀없이 살리라고/승려의 삶

※ 계속 발행됩니다.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썬다  
김사승 스님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보소라사 지물 스님

떨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  
성철 스님

풍금치는 큰스님  
용성 스님

허공에 대략된 문명  
부실기서 스님

하늘이여, 땅이여  
이저든 스님

지독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지독 지독(신국문/300원/26,000원)

남이 들으면 되도 않는 말이 불자의 생활입니다

남마다 좋은날 지독 이태호 지음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313-5056  
팩스: 393-9696

전화: 313-5041, 313-5056  
팩스: 393-9696